

강인규 나주시장 '뚝심' 통했다... 남평 강변제방도로 숙원사업 '해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면담해 지식천 제방 하천 점용허가 최종 승인

도로 확·포장 오는 6월 착공 예정...남평 강변도시 정주여건 개선 기대

나주시 남평읍 강변도시 조성에 따른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식천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가 수년간의 진통 끝에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됐다.

나주시는 27일 강인규 시장이 박성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남평 강변도로 제방도로 확·포장 및 치수 시설 설치를 위한 '지식천 제방 하천 점용허가'를 최종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지식천 제방도로는 남평읍 중앙교와 서산리(지방도822)를 잇는 총 길이 2.24km 구간으로 강변도시 아파트 입

주민들의 광주 방면 주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비포장 길 차량 주행으로 인해 인근 상가와 주택에 분진, 소음 등의 피해가 야기되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돼왔다.

더군다나 노면 폭이 협소해 교통량 증가 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으로 도로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나주시는 2017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 위한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고 이듬해 해당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등 일찍이 착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공사 착공을 위한 하천 점용허가를 놓고 익산청과의 협의가 수차례 지연되면서 지난 4년 간 답보 상태에 놓여있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부터 10여 차례 익산청 방문을 통해 하천 점용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해온 강 시장의 뚝심은 이날 박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값진 결실을 맺게 됐다.

강 시장 특유의 뚝심과 근성은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사업을 가리지 않고 빛을 발해왔다. 앞서 강 시장은 지난 2016년 하대성 전 익산청장(현 경

북도 경제부지사)과의 면담을 통해 나주종합스포츠파크 국유지(30억원 규모)를 무상 귀속 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남평읍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식천 제방도로 확·포장을 통해 원활한 차량 통행과 소음, 분진 문제 해결은 물론 지식천 치수 및 친수 설치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비록 긴 시간이지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신 박 청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내달 주민설명회를 거쳐 남평도시개발사업비 25억원을 투입, 6월 중 총 길이 2.24km(폭 7~10m)의 지식천 제방도로 확·포장 및 친수·안전시설 설치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로 확·포장과 함께 주민 편의와



강인규 나주시장은 27일 박성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남평 강변도로 제방도로 확·포장 및 치수 시설 설치를 위한 '지식천 제방 하천 점용허가' 승인을 요청했다.

안전에 위한 제방 성토 및 보행자 겸 등 기반시설 설치 공사도 함께 추진된 용도로 및 화단, 보행자 데크, LED 가로등, 횡단보도, 과속 카메라·방지턱

기동채본부

담양군, 딸기 재배농가 '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세요

월 최대 250만 원 지원 ... 참여농가 모집

담양군은 오는 5월 20일까지 딸기 재배농가의 2021년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참여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대부분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비수확기에 소요되는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은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체결한 출하약정량의 60%이내에서 월별로 나누어 농협에서 우선 지급하면, 담양군에서는 농협에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 최대 지급액

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려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5월 20일까지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월 급여는 6월부터 최대 7개월간 지급된다.

아울러 담양군은 1600여 농가에서 580ha를 재배하는 딸기 주산지



로 전년도에는 17농가가 신청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 딸기 재배농가 중 많은 농가가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협조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마을 상수도 등 물탱크 청소 시행

11개 읍·면 115개 마을에 맑고 깨끗한 물 공급

화순군은 5월 3일부터 1개월간 군민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물탱크를 청소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연 2회(상·하반기) 마을 상수도 등 급수시설 물탱크 청소와 위생 상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상은 화순읍 수만 1리 수촌마을 등 마을 상수도 49곳과 백야면 다곡리 옥곡마을 등 소규모 급수시설 66곳으로 총 115곳이다.

본래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마을 주민이고 물탱크 청소 등 관리 또한 자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나, 최근 농촌 지역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자체 관리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화순군은 관리 소홀로 인한 먹는 물 사고 발생 예방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물탱크 전문 청소업체에 의뢰해 청소를 진행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수인생 전염병 발생 예방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주변 오염원을 제거하고 청소와 소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구례군, 카드형 지역상품권 '구례사랑카드' 도입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 체결...블록체인 기술 기반 카드형 지역상품권 도입 부정유통 근절

구례군은 26일 김순호 군수와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카드형 지역상품권인 '구례사랑카드'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례사랑카드 서비스는 5월 7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종이형 상품권 10% 할인은 4월말로 종료되지만 카드형 상품권은 출시 기념으로 10% 할인 판매 행사를 5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보안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카드형 상품권은 종이형 상품권의 문제점인 훼손과 분실, 부정유통

가능성을 대폭 줄이는 장점이 있다.

구례사랑카드는 스마트폰 앱(chak:작)을 통해 카드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관내 상품권 판매대행점인 NH농협은행 구례군지부, 구례농협 본점 및 지점, 구례축협에서도 신분증과 휴대폰만 있으면 카드 발급 및 충전을 할 수 있다.

구례는 개인 카드형과 종이형을 포함해 월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구례사랑카드 가맹점은 앱(chak:작)의 가맹점 찾기 기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사랑카드는 종이형 상품권보다 카드 사용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도입했다"며, "구례사랑카드도 많이 사용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허균 <도문대작>

곡성군 농정과 유통양정팀 061) 360-7183

곡성토란 GOKSEONG TARO